

TV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show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from 6 AM to 12 AM.



새콤달콤 군침도는 로맨스가 시작된다

tvN '식사를 합시다?' ... 윤두준·서현진·권율 "3색 '먹방' 기대하세요"

외딴섬 만재도에서 펼쳐지는 현란한 요리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 가운데 '먹방'(먹는 방송)이 넘쳐나는 드라마가 찾아온다.

6일 밤부터 케이블채널 tvN에서 방송되고 있는 월화드라마 '식사를 합시다?'(매주 월, 화요일)은 로맨스에 군침 도는 온갖 요리를 버무려 시청자들을 제대로 홀리겠다는 각오다.

1인 가구가 증가한 요즘 세태에 맞게 1편에서 이혼녀의 일상을 담아낸 드라마는 2편에서 더욱 다양한 독거인들의 삶을 그린다.

최근 오후 서울 영등포에서 열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박준화 PD는 "우리 드라마는 혼자 사는 사람들의 감성적인 포인트를 잡아서 '먹방'과 함께 풀어내는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다.

도 사실"이라면서 "박준화 PD가 1편보다 먹는 장면 촬영에 더 공을 들여서 어렵다"고 말했다.

서현진(30)이 구대영의 옆집 여자이면서 초등학교 동창인 백수지 역을 맡았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에 사활을 거는 여자다.

이밖에도 입만 열면 "우리 남편이 청담동에서 잘 나가는 성형외과 의사"라고 말하는 세종시 7급 공무원 홍인화(조은지 분), 자유롭게 노년을 즐기는 할머니 이점미(김지영) 등의 캐릭터가 눈길을 끈다.

tvN 드라마 '미생'으로 눈도장을 찍었던 김희원과 황석정도 각각 구대영 선배이자 기러기 아빠인 임택수와 역적스런 세종빌라 주인 김미란으로 얼굴을 비춘다.

1편보다 더 유쾌하고 먹음직스러운 드라마이지만 내용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백수지가 먹는 것에 사활을 거는 것은 매일 '백대자'로 불렸던 똥똥한 시절로 돌아갈까 불안해서 하루 한 끼만 먹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먹방'에 스토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입혔습니다. 자주, 흔히 먹는 음식이라도 저마다 생각과 추억, 먹는 방식이 다른만큼 그런 점을 극대화해서 재미를 높일 생각입니다."(박준화 PD)

EBS1

Table listing EBS1 programs including 'EBSe 생활영어', '성공 인생후반전', 'EBS 인문학 특강(재)', etc.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including '올림포스 <국어 I-알짜개념>', '고교 Basic Grammar-junior', etc.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Table of daily horoscopes for various zodiac signs (子, 午, 未, 申, 酉, 戌, 亥) with dates and lucky numbers.

유희열 콘서트 중 '19금' 발언 사과

"경솔했던 언행 죄송" 홈페이지 글 올려

토리로 활동하는 가수 겸 작곡가 유희열(사진)이 콘서트 도중 성적인 농담을 한데 대해 사과했다.

유희열은 6일 토이 홈페이지에 '모두 모두 정말 고맙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아무리 우리끼리의 자리였다고 해도 이번 공연 중에 경솔한 저의 가벼운 행동과 말에 아쉽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무척이나 죄송해지는 밤이다"라고 미안함을 전했다.

이날 유희열이 지난 2~4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연 토이 콘서트의 둘째 날 공연에서 "내가 공연을 할 때 힘을 받을 수 있게 앞자리에 앉으셨던 여자 분들은 다리를 벌려 달라. 다른 뜻이 아니라 마음을 활짝 열고 음악을 들으란 뜻이다"라고 발언한 게 문제가 됐다.

이날 유희열은 공연 중간 '19금' 발언에 대해 "이 자리에 어른들이 계셨다면 정말 죄송하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팬들과 함께 하다 보니 제가 (편한 마음에) 그랬다.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발언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퍼져 나가며 논란이 됐다.

유희열은 이 글에서 "오랜 시간 아끼고 간직해 온 기억들도 한마디의 말로 날려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더 깊게 새기면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에 부끄럽고 마음이 무거워진다. 정말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누리꾼의 의견은 분분하다. 다수 누리꾼은 '아무리 방송이 아니라지만 농담이 지나쳤다', '감성변태'란 콘센트는 그렇다 해도 도를 넘는 일은 조심해주길, 말 한마디의 힘을 모르는가, '나쁜 의도가 아니어도 경솔하다'라고 지적했다.



입소문 관객몰이 1위 '변호인'

최근 개봉한 한국 영화 중 가장 입소문을 탄 영화는 무엇일까. 답은 송강호 주연의 영화 '변호인'(2013·1137만)이다.

CJ CGV가 최근 연 영화산업 미디어 포럼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14년 개봉작 가운데 '순수 추천 고객 지수'(NPS·Net Promoter Score), 즉 '입소문 고객 지수'가 가장 높은 영화는 '변호인'이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재로 한 '변호인'은 개봉 33일만에 한국 영화로는 9번째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바 있다. 역시 천만 영화인 '7번방의 선물'(2013·1281만)과 '국제시장'(2014·1417만)이 NPS 56%로 그 뒤를 이었고, 한국 영화사를 새로 쓴 '명량'(2014·1761만)은 51%였다.

같은 기간 개봉한 외화 중에서는 애니메이션 사상 처음으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겨울왕국'(2014·1029만)이 60%로 관객의 추천도가 높았다.

같은 기간 개봉한 외화 중에서는 애니메이션 사상 처음으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겨울왕국'(2014·1029만)이 60%로 관객의 추천도가 높았다. '인터스텔라'(48%), '드래곤 길들이기 2'(30%), '아이언맨 3'(27%), '캡틴 아메리카: 윈터솔저'(26%)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